시분석

시분석 김길녀〈때,〉

때, 김길녀

해질녘 여름 강에서 보았다 마른 땅 가까운 낮은 물결 속 치어들 총총, 조금 깊은 물결 속 중치들 숭숭, 물길 따르고 있었다

먼 길 나서야 하는 길의 때, 맨발로 저들에게서 배웠다

먼 길 나서야 하는 길의 때, 맨발로 저들에게서 배웠다